

회의의사록

회의명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일시	2014. 2. 4(화) 7:00pm
회의장소	복음관 회의실	불참자	
회의안건	2014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p>찬송가 410장을 부르고 신창현위원의 기도 후 정해덕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p> <p>정해덕위원장이 2014년도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정부의 권장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등록금 인하사유와 증감 추정치를 2014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설명하다. 자료의 등록금 수입의 감소요인으로 등록금 인하 및 전년대비 각종 감소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시되는 것은 0.11%이지만 단일등록금제로 인해 학생개인별로는 4.3% 인하되는 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자금예산서 및 세부수지현황표를 근거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다.</p> <p>학부는 등록금은 0.11%인하하고 입학금은 동결하였으며 대학원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은 10만원씩 인하하는 것이라고 말하다.</p> <p>그리고 우리 대학은 단일등록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되는 인하율은 학부 0.11%인하, 대학원 2.7%인상이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학부 -4.3%, 대학원 동결이 된다고 설명하다.</p> <p>전병준 - 왜 정보과학부와 간호학부 등록금이 다른 전공에 비해 더 많은가? 김성경 - 실험실습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해덕 - 이공계열과 자연계열은 실험실습 등을 포함한 각종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비는 유지보수 및 교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다 신창현 - 장학금 지율은 어떻게 되나? 정해덕 - 현재 예산규모로는 14.9%가량 되는데 전년도 비추어 보면 계속 추경을 통해 증액되기 때문에 15%~16%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다 박하중 - 정부의 등록금 인상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 정해덕 - 최근물가상승을 평균의 3배수로 약4%이다. 그러나 인상을 하는 경우에는 각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상을 불가한 상황이다. 박하중 - 등록금 인하는 당장은 학생에게 좋을 수 있지만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등록금을 꼭 인하해야 하는가? 정해덕 - 그런 여론이 많다.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불가피하게 인하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선희 - 등록금 상한제는 있으나 그렇게 하여 지표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소의 점수만을 받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산술적으로</p>
--	---

회의 의사록

회의 명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일시	2014. 2. 4(화) 7:00pm
회의장소	복음관 회의실	불참자	
회의 안건	2014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불가능한 것이다. 교육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등록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14년도 자금예산서를 보면 일립관 증축으로 시설이 늘어나면 관리운영비가 자연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어떻게 되더라도 내년은 더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말한다.

김성경 - 인건비10%도 예산이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아니라 시간강사료를 축소하여 그 대신 전임교원이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증가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박하중 - 14년도 차기이월금이 전년대비 8억7천이 감소하는데 15년도 예산수립시 이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나?

최선희 -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으로 믿고 운영하고 있다.

전병준 - 단일등록금제를 폐지하면 올해 신입생들은 내년도에 등록금이 인상될 수도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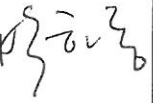




김인화 - 올해 입학한 학생들까지는 오히려 일정부분 소폭이라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등록금 편제가 완성되면 교육부 정책에 따라 그 이후 인상될 수도 있다.

최선희 - 정부의 이렇게 옥죄이는 등록금 정책은 대학의 자금운영에 편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동결이하로 정해서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등심위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정해덕 -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지 묻고 의견이 없자 본 안으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 동의 제청해달라고 요구하다.

이에 전병준 위원이 동의하고 최선희 위원과 박하중 위원의 제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다.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치다.

참석자	김성경 	김중완	나혜숙 	박하중 
	신웅석 	신창현 	이철희(불참)	전병준 
	정해덕 	최선희 